

대규모 연구개발센터, 완주에 첫 삽

일진하이솔루스, 총사업비 120억원 투입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서 착공식

일진그룹 계열사 일진하이솔루스(대표 안홍상)가 11일 오전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대규모 연구개발(R&D)센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술연구와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현지 센터 건립부지에서 진행된 이날 착공식에는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 김성명 완주군 부군수, 김두홍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일진하이솔루스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삽식과 기념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앞으로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944㎡에 지상 3층의 R&D센터를 건립하고 연구동과 개발동, 평가동 가스 시험동 등의 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상용차, 드론, 철도용 저장

솔루션, 수소물류용 튜브스키드, 액화수소 저장 솔루션 등 수소 모빌리티 관련 최첨단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에 나서는 등 국내 수소경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안홍상 일진하이솔루스 대표는 기념사에서 "이번 착공식을 통해 친환경 수소연료저장 솔루션 분야에서 선도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운송수단 제품 상용화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명 완주군 부군수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일진하이솔루스가 앞으로 연구개발센터 착공과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두주자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며 "군 차원에서 '수소



일진그룹 계열사 일진하이솔루스가 11일 오전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대규모 연구개발(R&D)센터 착공식을 갖는다.

경제 육성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인 만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진하이솔루스는 올해 4월에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센터와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 농업인의 날 '가래떡 나눔'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어요"

전북농협, 전주송천중고 찾아 사랑나눔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1일 '제26회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를 맞아 전주송천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농업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농산물로 만든 가래떡과 학생용품 등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외부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이 재배한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과 음료수,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용품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민 삶의 기본인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농업인의 날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농업이 대우 받고

농촌이 희망이 되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전북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날"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업의 역할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 공식 제정되었다.

더불어,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데이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데이로 인식하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는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 개발에서 배우는 인생교훈'

타타대우 김방신 대표, 전북대서 특강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이 산업 맞춤형 특화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인 초청 특강을 마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타타대우 김방신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전북대 공대 8교과와 온라인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날 김방신 대표는 '자동차 개발에서 배우는 인생교훈'을 주제로 타

타대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차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 자동차 개발과정에서 겪었던 에로사항을 극복한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또한 상용차 산업을 이끌어 간 대표로서 느꼈던 생생한 경험 등을 진솔하게 털어놓아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은 LINC+사업단이 추진하는 특화 분야 인력 양성 프로그램 E.A.T.교육인증제(에너지융합공학분야)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자동차산업 분야 특강을 통해 관련 분야 학생들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 향상을 도왔다.

한편 전북대 LINC+사업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 공간적 제약 없이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제공하고 있다.

고영호 단장은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리 쌀의 소중함 알리기'

LH전북-한옥마을협동조합

LH전북본부(본부장 김승철)와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이사장 오춘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으로 마음을 나누는 '가래떡 나눔의 날' 행사를 LH전북본부에서 개최했다.

'가래떡 나눔의 날' 행사는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에서 2008년부터 11월11일 막대과자 대신 전통가래떡을 알리자는 취지로 매년 주관해 온 행사로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을 꾸준히 지원해온 LH전북본부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LH전북본부는 별관에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마련하여 JB스토어 365 사회적협동조합,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회, 아프리카 커피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특히 JB스토어 365와는 ▲찾아가는 점빵장터, ▲명절맞이 꾸러미 지원사업, ▲안파나눔 행사 등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제20회 가래떡 나눔의 날 행사는 전북지역 유아교육기관 원아 및 관계자·학부모·지역주민 등 약 1,2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먹거리의 중요성과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을한파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농가와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LH전북본부와 오춘자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나갈 것을 밝히며, "가래떡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과 사회적 경제조직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19일까지 기초연금 온라인 이벤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도

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기초연금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온라인 이벤트는 공단 블로그(blog.naver.com/pro_nps)에서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결과는 11월 말 공단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기초연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기초연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게 제도를 적극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무주 사과·샤인머스켓 러시아로 첫 수출

무주농협 APC에서 선적식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 수출업체인 스마일무역(대표 오태준)과 손잡고 무주 사과와 샤인머스켓을 러시아(블라디보스톡)로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11일 무주농협 APC에서 진행했다.

선적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하여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박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양승욱 구천동농협 조합장, 김석중 무주년빛불조금법인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러시아 수출은 총 4톤 정도로 무주농협에서 샤인머스켓을 구천동농협에서 사과를 선적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 농산물이 명실공히 세계 속에 자리 잡은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무주농산물 수출확대에 힘써 농업인의 농



전북농협은 전북 수출업체인 스마일무역과 손잡고 무주 사과와 샤인머스켓을 러시아로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11일 무주농협 APC에서 진행했다.

산물 수취가격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무주에서 정성스레 키운 사과와 샤인머스켓이 신시장인 러시아에 첫 수출하는 좋은 사례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애쓰시는 무주군을 비롯하여 무주군내 농협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무주=전문선 기자

이런 수출은 무주년빛불조금법인이 적극적 수출 마케팅을 펼쳐 극동지방인 러시아에 첫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전북 수출업체인 스마일무역과 협업체 무주군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 전북사무소

지리산 재난안전관리 현장점검

국립공원공단 전북사무소는 지난 9일 김영일 공단 탐방·안전이사가 참여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김 안전이사와 윤명수 지리산전북사무소장이 함께 코로나19 예방대책 점검 및 재난취약지구, 이영장 등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 및 시설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이영장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탐방 방역 세부지침 준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탐방로 상의 낙석 방지시설, 안전난간 등 시설물 안전을 점검을 병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는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과 재난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기 78.3% "사고위험 대비 위해 PL보험 가입"

애로사항은 '높은 보험료 부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건으로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PL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

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실제사 영업비용을 낮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천시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원사업에 참여해 4/4분기에 5백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PL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최근 진행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기업 10곳 중 7곳 이상(78.3%)은 사고위험 대비 위해 PL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L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은 "높은 보험료 부담

(59.3%)", "PL관련 정보제공 부족(23.8%) 등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10곳 중 7곳(68.6%)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PL단체보험 관련 정부(지자체)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대(77.7%)", "PL보험 가입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우대(11.7%)", "PL관련 최신정보 수시 제공(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관공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전무는 "그동안 광역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포천시의 지원은 기초지자체로서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최근 분회 조사결과를 보면 지자체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PL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촌 지역공동체 재생 논의

농진청, 오늘 심포지엄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와 함께 12일 '농촌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공동체 재생 심포지엄'을 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 개최를 병행해 진행하며,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이 불러온 농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 재생을 통한 농촌 활력과 방안을 찾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돕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1부에서는 ▲디지털 시대 농촌사회 변화와 공동체의 역할 ▲지역발전과 청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탄력적 전환 과제 발표와 함께 ▲전북 농촌지

역 활성화, 농촌생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농촌 크리에이터 ▲폭염색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마을기업 등 현장 우수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지역공동체 중심의 농촌 재생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농촌문화, 생활 복지, 시설 등 종합적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류호경 회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연구와 학술적 정보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